

보도	2023.7.25.(화) 조간	배포	2023.7.24.(월)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국 상시감시팀	책임자 담당자	국 장 김진석 (02-3145-7010)
			팀 장 이동규 (02-3145-7020)

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가 장기성과와 연동되어 설계·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
I 점검 배경

- ☐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,
 - 오히려 '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.
- ☐ 이에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
 -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

II 규제 체계

- ☐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(이연지급 대상, 기간)을 제시하고,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구분	내용
대상 증권사	자산 5조 이상 증권사, 자산 2조 이상 상장 증권사
지배구조	이사회내 '보수위원회'를 설치,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·의결
이연지급 대상	임원/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상, 성과보수의 40%이상, 3년 이상 이연

III 점검 결과

1 '22년 성과보수 지급 현황

- 22개 증권사가 '22년중 부동산 PF 성과에 대하여 지급한 성과 보수 총액은 전년대비 1,933억원 감소(5,458억원→3,525억원)하고 조정금액*은 263억원 증가(64억원→327억원)하였으며,

* 증권사가 과거 이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성과보수를 의미

- '22년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 보수는 감소(978억원 → 770억원)한 반면, 조정액은 크게 증가(3억원 → 236억원)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(단위 : 억원)

구분	성과보수액			조정액		
	'21년	'22년 ^{주)}	전년 대비	'21년	'22년	전년 대비
전 임직원	12,141	7,345	△4,796(△39.5%)	175	713	538(+307%)
PF 임직원	5,458	3,525	△1,933(△35.4%)	64	327	263(+411%)
유동성지원 대상	978	770	△208(△21.2%)	3	236	233(+1,288%)

주) '22년에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증권사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

2 주요 문제점

◆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는 법령에 따라 **장기성과**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• 운영되어야 하나,

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, 지급 기간도 단축하며,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등 **단기성과**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▶ **성과보수 지급수단, 이연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.**

-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, 40%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합니다.
 -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*(금액기준 79.7%)되어 있었고,
 - *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.3%에 불과
 -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,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

▶ **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.**



-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.
 - 각 증권사는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(규모, 시기, 방법 등)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.
- 그러나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
▶ **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**

-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즉, 각 사업별로 구조(만기, 신용등급 등), 영업형태(주선, 매입약정, 매입확약 등) 등 개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합니다.
-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례*를 확인하였습니다.

* (예시)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(NCR)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

※ 성과보수액 = (수익 - 비용) × 성과보수지급률

사업장 특성	< 리스크 속성 반영 >	< 리스크 속성 미반영 >
 (아파트) ■ 거래만기 : 1년 ■ 위험수준 : 보통 단계	☑ 투자규모 : 10억원 ■ 단기투자 : 비용에 10% 반영 ■ 보통위험 : 비용에 10% 반영 → 투자규모의 20%인 2억원을 비용으로 반영	☑ 투자규모 10억원 ■ 20%를 비용으로 일괄 반영 → 2건 모두 투자규모의 20%인 2억원을 비용으로 일괄 반영
 (물류센터) ■ 거래만기 : 4년 ■ 위험수준 : 주의 단계	☑ 투자규모 : 10억원 ■ 장기투자 : 비용에 20% 반영 ■ 높은위험 : 비용에 20% 반영 → 투자규모의 40%인 4억원을 비용으로 반영	
차이점	☐ 투자기간, 위험수준에 따라 비용을 2배 차등 부과	☐ 투자기간, 위험수준과 관계없이 비용을 동일하게 부과

▶ **일부 직원을 이연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였습니다.**

-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, 그리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*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여야 합니다.

* 증권·파생상품의 설계·판매·운용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증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자

- 그러나 22개사 중 17개사(77.2%)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,
-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.

<이연지급대상자 임의 제외 사례>	
성과보수 총액	이연지급 여부
1억원 이상 ↑	이연지급 일시지급 (17사)
1억원 미만 ↓	

(예시) 1억을 기준으로 이연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지급시기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 발생

IV | 향후 계획

- ☐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,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.
- ☐ 이에 금융감독원은
 -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·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,
 - 금투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습니다.
 -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